인터넷 불교대학 '인기 솔솔'

안방에서 클릭하나로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불교 교양 대학이 인기를 끌고 있다. 주부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요즘 더욱 호응을 얻고 있는 인터넷불교 교양대학은 컴퓨터만 있으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맞춰 유명 스님들의 설법 및 강의를 언제나 들을 수 있기에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무불선원大 등 5곳 개설 안방서 교리·경전 공부 고승법문 동영상 서비스

현재 개설돼 있는 인터넷 불교 대학은 '인터넷 불교대학', '아이 엠 넷' '무불선원대학원' 등 5개 정도다. 이중 가장 호응도가 높은 것은 '인터넷 불교대학(www.buddhistweb.com)'. 이 사이트는 일반인들도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까지 제공하고 있어 5월 2일 문을 연지 6개월만에 매주 한 강좌당 7백명이상이 이용하는 등 인터넷 불교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인터넷 불교대학'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원격강의 교육시스템을 도입, 동영상으로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화면 좌측에 강의노트가 작동돼 입체적인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 주요인이다. 또 '불교교리 강좌' '불교원전 강독' '이주의 설법' '불교쟁점 100문100답'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와 최봉수 교수(前 동국대 사회교육원)를 비롯해 혜거스님(금강선원장), 도법스님(실상사 주지) 등 선지식들이 강사진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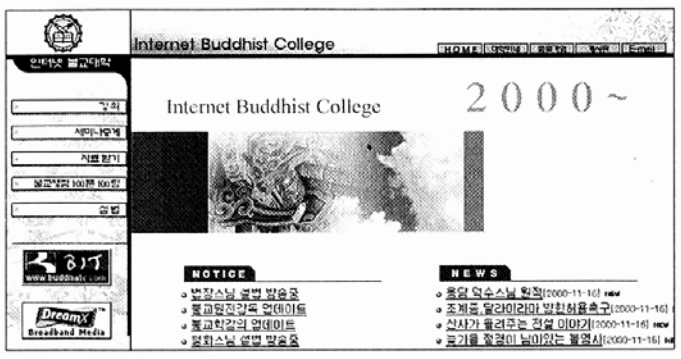
'인터넷 불교 대학'을 이용하고 있는 김순임 보살(40)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매월 2회 하고 있는 다보법회나 강좌를 듣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들을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몇달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법문을 들으니 마치 법당에서 듣는 것과 같아 좋다"며 자랑을 늘어 놓았다.

무불선원도 최근 인터넷 불교대학인 '무불선원대학원(www.moobool.com)'을 개설하고 인터넷 온라인 불교 강좌 시대를 열었다. 유일하게 한 강좌 당 1천원씩 유료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 '무불…' 역시 현각스님(동국대 교수)을 비롯해 종호스님(동국대 교수), 강건기 교수(전북불교대 학장) 등의 유명 강사진의 강의가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요약식 강의 노트도 원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종교 전문 사이트인 '아이 엠 넷(www.imn.net)'도 법정스님(맑고향기롭게모임 회주), 숭산스님(화계사 조실) 등 선지식들의 설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구성했다. 또 '불교탐구'란 코너를 개설해 불교 기초교리는 물론 〈금강경〉 〈반야심경〉 등 경전 해설과 달라이라마, 틱낙한 스님 등 외국 선지식들의 법문을 수록해 놓아 언제든지 동영상과 풍부한 자료를 통해 불교를 공부할 수 있게 꾸며 놓았다.

이외에도 대구 영남불교대학(www.cyberbuddha.or.kr)도 인터넷 불교 대학을 개설해 사이버공간에서의 포교를 하고 있다. 대구 영남불교 인터넷대학에서는 기본과정과 고급과정으로 나눠 불교교리 기초 경전강의가 진행된다.

인터넷 불교대학 최봉수 학장은 "다양한 컨텐츠와 꾸준한 관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터넷 불교대학도 성공할 수 있다"며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은 특히 안방에서도 편안히 교리 공부와 신행활동을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네티즌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인터넷 불교대학'의 동영상 화면.

주부 신행담

기도하며 사는 삶 ㊤

"예수쟁이는 싫다 그러니 성당에 다시는 나가지 말아라."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까. 몇 번의 충돌 끝에 내려진 남편의 엄명이었다.

맏형수가 교회에 다니면서 부모님의 제사를 모시지 않아 집안 내부에서 분란이 끊이질 않자 그 과정을 지켜본 남편이 당시 성당에 나가던 나에게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우리집에서 3㎞ 떨어진 성당엘 다녔다. 어른도 다니기 힘든 이른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사를 다니던 나에게 온 동네 어른들이 겁도 없는 '특별한 아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신심이 깊었다. 그러나 당시 나는 천주교에 대한 종교적 신앙심보다는 전장으로 떠나는 사람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부탁이라 휴가때를 제외하고는 성당에서 매일 기도를 올려주었다. 내 기도가 먼 남쪽 나라로 전해졌음인가. 그 장교는 1년뒤 살아 돌아 왔고, 성당을 방문해 그것이 모두 나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고마워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평생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졌다. 하지만 결혼 후 나는 자연스레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전생에 불가와 지중한 인연이 있었음인가, 우여곡절 끝에 15년전 대구에서 지금의 해인사 앞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이사와서 몇 개월이 지났을까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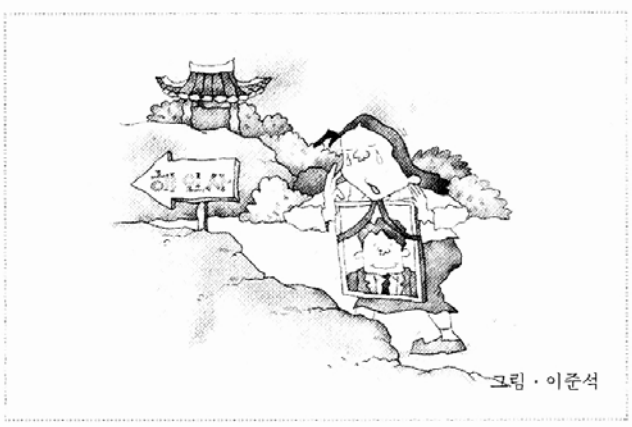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남편이 세상뜨자 눈앞이 캄캄

하얀 나비같은 모자를 쓰고 계신 수녀님의 고결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성당엘 다녔던 것 같다. 하얀 피부에 누구에게든 친절하고 다정하게 맞아주시는 수녀님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상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다가왔던 것이다.

20대 초반 여군생활을 할때도 군성당엘 나가 열심히 기도하며 어릴적부터 꿈꾸던 수녀가 되기로 결심한 적도 있었다. 특히 1971년 2군 사령부에 근무하며 성당일을 맡아 할때 한 사건으로 수녀가 되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로 성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성당에서 가끔씩 마주치며 안면이 있던 장교 한분이 월남전에 투입돼 백마부대로 파월되니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쪽지를 남기고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월남전 막바지에 생사를 넘나드는 욕을 다녀온 남편이 아주 흐뭇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오늘 정말 부처님같은 분을 만났다고 감격해 하는 것이었다. 대체 어떤분이길래 생전 남의 칭찬이라고는 잘 안하는 남편이 저렇게 감동할까 나도 따라 무척 궁금해졌다. 나중에 알고보니 부처님 같다는 그 분은 해인사 길상암 명진 스님이었다. 스님이 암자에서 키우는 10명 남짓한 아이들을 목욕탕에 데리고와 한 명씩 정성껏 씻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한 것이다.

평범한 가정 주부의 삶을 살아가던 나에게도 인생의 큰 고비가 왔다. 절대적인 기둥이었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변해 버렸다. 눈앞이 캄캄했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했다. 한동안은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이 컸다. 〈계속〉

전혜진〈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⑥

■ 손톱과 건강

손톱을 뼈의 연장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으나 피부의 일부다. 반달 모양의 뿌리 부분이 손톱을 만드는 조직인 것이다.

손의 빛깔처럼 손톱의 상태나 빛깔도 신체의 상태를 미묘하게 반영한다. 예컨대 손톱의 반달이 깊숙히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도 좋다.

손에 대한 건강 서적에서 말하는 손톱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난히 길이가 긴 손톱을 가진 사람은 호흡기 계통이나 혀의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짧은 사람은 하반신이 약하기 쉽다. 그리고 지나치게 신경이 과민하므로 의식적으로 느긋해질 필요가 있겠다. △가로로 골이 있는 손톱은 4개월에서 1년 사이의 병력을 나타낸다. 손톱이 빠졌다 다시 나는 시간은 연령에 따라 짧게는 4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린다. △세로로 골이 있는 손톱은 정신적인 피로를 드러낸다. △잘 부러지는 손톱은 빈혈이나 내분비선의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 △무른 손톱은 칼슘 부족과 체력 저하가 주원인이다.

긴손톱 호흡기 질환 주의

무른손톱 칼슘 체력부족 탓

△반짝거리는 손톱은 갑상선의 기능의 항진을 나타낸다. △새파란 손톱은 빈혈이나 순환계의 상태가 아주 나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검붉은 손톱은 울혈이 있거나 심장이나 폐 등 순환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다. △누런 손톱은 뼈의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현대 의학의 진단 능력이 눈부시긴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라도 가끔씩은 자신의 손톱을 들여다 볼 일이다.

불교 청소년문학상 수상자

(시) 김두연 (희곡) 김미란 (수필) 장지성

아동문학상 김진식 교수

한국불교 청소년 문화진흥회는 4일 '제 6회 한국불교 청소년 문학상 수상자'와 '제 18회 불교아동문학상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 부문에 '가을 숲길'을 지은 김두연군(서울 중경고교 3년), 희곡부문에 '풍경소리'를 주제로 쓴 김미란양(서울 정신여중 3년), 수필부문에 '연꽃인연'을 쓴 장지성군(충북 청주고교 1년)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6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개월간 현상 공모한 이번 행사에서는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희곡, 봉사활동 수기 등 7개 부문에서 1천7백여편이 응모됐다.

불교아동문학상에는 23년간 불교 동요와 동시 창작에 전념해 온 김진식 교수(경기대 국어국문학과)가 선정됐다. 특히 김진식 교수는 '관세음의 피리' '고요를 기다리며' '원두막' 등 220여편의 불교 동시를 발표하며 어린이 문학 포교에 공헌 했다는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 불교 글짓기 대회도 열어 전국 초등학교에서 응모한 4만여편 중에서 우수작 70편을 심사해 시상했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4시 한글회관 강당에서 열린다. (02)425-3902 김주일 기자

청소년단신

광주대불청 문화예술제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는 12월 3일 오후 5시 남도문화예술회관에서 '부다가야 청년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김태홍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주지역 청년불자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행사에서는 각 사찰에서 준비한 허슬춤을 비롯해 고전무용과 성악, 합창곡 연주, 사물놀이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 백양사 합창단과 광주 시립국악단이 찬조 출연해 불교 음악과 국악 등을 연주한다. (062)225-3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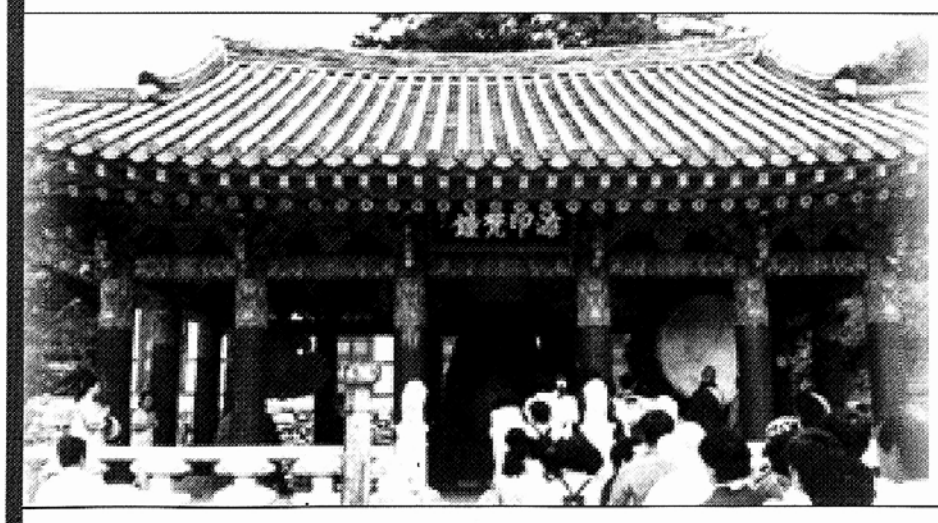
디지털상담실 자원봉사

디지털 청소년 열린상담실은 26일 혜능보육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이날 봉사에서는 보육원 실내 청소 및 세탁, 레크리에이션, 체육활동 등이 펼쳐진다. (043)259-5711

명성여고 효도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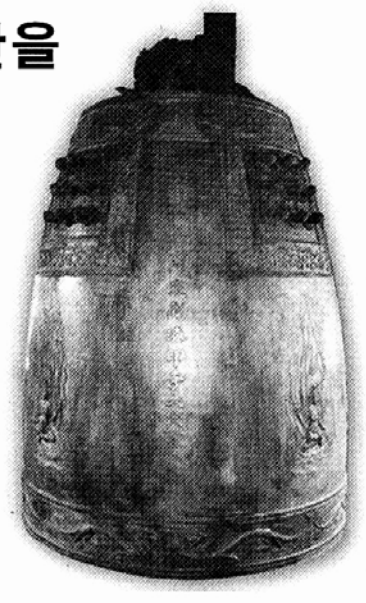
종립학교 명성여고는 18일 구내 학교식당에서 학부모 및 지역노인 1백명을 초청해 '경로효도 잔치'를 열었다. 지난달 먹거리 및 알뜰 장터를 개최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 어머니회 '수심회' 회원들이 준비한 음식과 기념품 등이 제공됐다. 또 식사후에는 노래자랑 등 흥겨운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가졌다.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